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오선사 '五無觀'

선사의 법명은 원오(圓梧), 법호는 만화(萬化), 속성은 이(李) 씨다. 전남 해남에서 조선 숙종 20년(1694)에 태어났다. 선사는 어려서 수군영(水軍營)의 공생(貢生) : 지금의 해군 병사의 보조이 되어 관아를 출입하였다. 본래 성품이 과묵하고 침착하여 세속적 명예와 이익에는 뜻이 없었다.

해남 대둔사 환성 지안 선사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은 호암 체정 강백에게 경론(經論)과 율장(律藏)을 수학하게 되었고, 30세에 경율의 깊은 뜻을 환히 알게 되었다. 이후 선사는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강백과 전제사로서 전법활동을 펼친다. 선사의 가르침이 높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풍미하여 화승과 율사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가르침을 청하는 스님들에게 선사는 "나 자신의 업(業)도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는 데

홀로 수행 2. 탁발 공양 3. 절식 4. 한 자리에서 먹고 거둬 먹지 아니함. 5. 많은 적든 발우 안에 있는 그대로 만족함, 6. 정오 이후는 어떤 것이든 먹지 아니함, 7. 험웃 한 발로 입음, 8. 모든 옷은 밖에는 벗어두지 아니함, 9. 무덤 곁에 있으면서 무상관(無常觀)을 함, 10. 나무 밑에서 생활을 한다, 11. 로지(露地)나 바위(巖)에 있는 것, 12. 앉지만 하고 눕지 않는 것을 하였다.

그러면 어느 해 겨울 밤에 호암이 울음소리를 듣고 확신했대하였다.

오무관(吾無觀) : 아무것도 없는 것

了知諸行皆如幻(오지제행개여환) 見法惟心自開(현법유심심자한) 無際性空智月滿(무제성공지월만) 無靜無作獨圓團(무정무작독단단)

모든 것 허깨비임을 알고, 법을 보니 마음뿐이라 마음이 절로

모든것 허깨비임을 알고

법을 보니 오직 마음뿐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사양하였다. 스님들의 이 같은 바램이 계속되자 선사는 모든 인연을 뒤로한 채 홀연히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전국의 명산대찰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신의 학문과 수행세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상원암에 머물 때는 <화엄경> 39품의 종지(宗旨)를 밝혔는데, 당시 불교계에서는 선사를 가리켜 화엄대보살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선사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절저한 수행과 중생을 자신의 몸 이상으로 아끼는 자비로운 보살행으로 인해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까지 불리며 많은 수행자들의 사표가 됐다.

대강백으로 전제사로서 활발한 강론을 하시던 선사는 마침내 학문으로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고, 선문(禪門)으로 발길을 돌려 깊은 진리에 다름을 기탁하게 되었다.

선사는 인허 해안 선사를 찾아 입실(入室 : 구참(久參) 수좌가 스승 방에 들어가 참문(參問)을 하고 답을 받아 정진하는 것)하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였다.

선사의 정진에 있어 십이두타행(十二頭陀行) : 1.인가를 멀리 떠나 산속에

한가하다.

가없는 자성 허공에 지혜의 달빛 가득하네, 고요함도 움직임도 없이 홀로 둥글구나.

선사의 선관(禪觀)은 선사의 깨달음의 선오(禪悟)에서 밝혀 놓았다. 선사의 그 깨달음은 바로 계율(戒律)에서 시작되었으며, 궁극의 깨침은 티끌 한점 없는 빙륜(氷輪)이며, 하얀 연꽃과 같다.

선사는 율(律)·학(學)·선(禪)에 두루 통달한 당대의 대선지식(大善知識)이다. 선사가 가르치는 황구는 연꽃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귀머거리가 알아듣고 소경이 눈을 뜨듯 통달한 당대의 대선지식(大善知識)이다. 선사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은 새로운 선지의 세계를 체험했다. 무지한 남자들도 삼조연하(三條緣下 : 서까래 세 개의 넓이에 해당하는 승당(僧堂), 세로 6척 가로 3척)에 각안(覺岸 : 깨달음의 언덕)을 보게 되었으니 선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선사는 만일동국선원(萬日東國禪院) 연화실에서 영조 34년(1758) 8월 어느 날 홀연히 좌탈입망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본 큰스님

관정스님

중국 복건성 삼회사 주지

염불삼매에 이르면 '명심견성'

법력이었을까?

기상청의 일기여보는 일요일(10월 28일)에 전국적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막상 일요일은 청아하기 이를 데 없는 전형적인 우리나라만의 가을날씨였다. '중국 관정(寬淨)대법사 초청 천도제 및 마정수기 법회'가 열리는 북한산 영취사를 향해 오르는 길은 조락(凋落)한 낙엽들로 장엄되어 있었다.

절이 가까워지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산새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영취사 마당에서 목 끝까지 차 오른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78세의 노스님이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마다 않고 올라오신 것이나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온다더니 해맑은 가을날씨를 드러낸 것이 바로 법력이 아닐까.

관정 스님은 근대중국의 고승 허운(虛雲 1840~1959)화상의 제자다. 동산양계(洞山良价) 스님을 처음으로 하는 동운종파(洞云宗派)로 치면 48세 법승이 된다. 처음 출가하여 10여년간 허운 화상을 모셨고 스승의 입적전 10여년을 모셨다.

북한산 영취사 법회참석

"염입골 살에 광동성 남화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강서성 은고산으로 가 허운노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노사로부터 참선선정을 배웠는데 40여 년 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허운 노사는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분이었습니다. 무섭도록 정진을 하시는 스승의 내면에서 넘쳐나는 자애로움을 나는 늘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관정스님은 검약한 생활이 수행인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주변에서 관정스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휴지한 장도 나누어 쓰는 검소한 생활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허운 화상의 제자로 참선 수행을 하던 관정스님이 정토선으로 수행의 방편을 바꾼 것은 불가사의한 체험에서 비롯된 일대 변화다. 관정스님은 1967년 음력 10월 25일 복건성 덕화현의 미륵동에서 선정에 들었다. 그 때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서방정토 구품연화경(九品蓮花境)을 참관하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됐다.

"선정에서 깨어난 때가 1974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장장 6년 5개월간 선정에 들어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간동안 미륵불을 친견하고 또 관음보살의 인도를 받

아 하품하생에서 상품상생에 이르는 정토 구품연화경을 두루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해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이승으로 돌아 왔습니다."

관정스님의 그런 체험은 최근 영취사가 간행한 <자성염불 명심견성>이라는 책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가을바람처럼 투명한 인상의 관정스님을 만나 가장 궁금했던 것(세속적인 안목에서)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6년 반 동안 선정에 들었다가 돌아 왔다면 육신은 어디에 어떻게 두고 다녀왔느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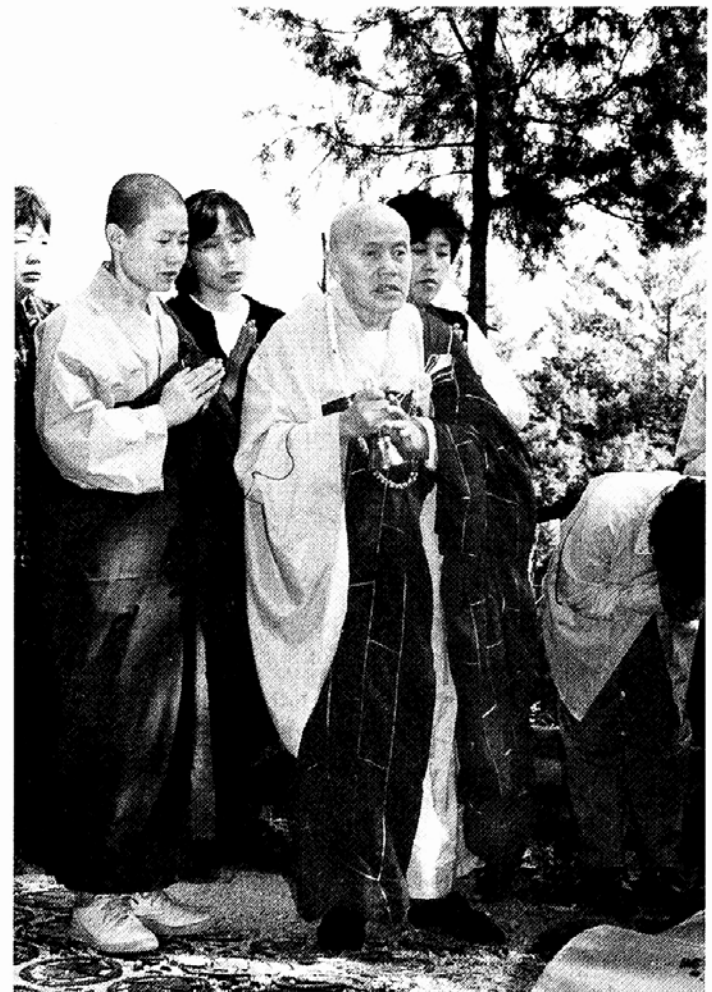
"선정에 들어 있는 동안의 육신은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미륵동 동굴에 몸을 두고 갇힌 것이고 마치 진공의 상태에서 물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몸도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물을 차례. 그 신비로운 체험 이후 정토선을 주창하시는데 서방정토에서 특별한 무엇을 배우고 왔기에 수행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

“ 화두선은 무념으로 이루고 정토선은 일념으로 이루는 것 ”

었다. 이에 대해 관정스님은 구품연화경을 참관 한 후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설명했다.

"아미타 부처님 앞에 나아가 3배를 드리자 금구(金口)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중생의 불성은 한가지로 평등하다. 의식이 뒤바뀌어 환(幻)으로서 진(眞)을 삼아서 인연과보로 6도에 나고 없어지는데 윤회를 끊지 않으면 고통이 만 가지다. 내 48대 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니 남녀노소가 신(信) 행(行) 원(願)으로 일심불란하면 이것이 정토선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청하니 아미타부처님께서 "정토선을 두고 가르쳐서 중생들이 선정쌍수(禪定雙修)하게 하라, 종교로 종교를 비방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은 모두가 진실하니 수행하는



정토선수행을 통해 성불에 이를것을 가르치는 관정스님. 28일 북한산 영취사에서 천도제를 주관하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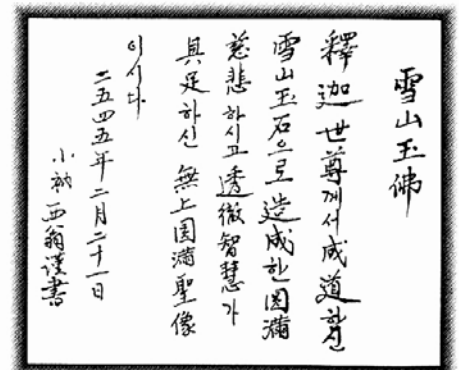
자는 사뭇을 바름으로 귀의시키고 마음도 로 변하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여야 하니 서로 돕고 사랑하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이어야한다" 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체험 이후 스님은 정토선을 닦으며 여러 제자들에게 정토선을 가르치고 있다. 정토선이란 두 단계로 닦는 수행법이다. 첫째는 염불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두 번으로 나누어 먼저 한 번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이 때 다른 받은 상대편의 염불을 속으로 들으며 묵송(默誦)한다. 그리고 다른 번이 묵송을 하는 동안은 소리를 내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

이다. 이런 과정은 자신이 직접 염불을 하면서는 자신의 염불소리를 관하고 다른 번이 염불을 할 때에는 그 소리를 관하는 것이다. 혼자 염불을 할 경우에는 두 번은 소리 내어 염불하고 두 번은 묵송을 하는 것을 되풀이 한다. 관정스님은 "이같이 염불을 일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염불을 그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 항상 염불삼매를 유지하는 자성염불(自性念佛)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이것으로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정토선의 다음 단계는 수선법(修禪法). 자성염불이 이루어진 때부터는 소리를 내서 염불하지 않고 속에서 들려오는 염불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주진서



고불승려 방심 석승 큰스님